

제주도방언의 친족어 연구*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김 미 진**

차 례

1. 서론
2. 조부모 항렬(G2)과 증조부모 항렬(G3)의 친족어
3. 부모 항렬(G1)의 친족어
4. 형제 항렬(G0)의 친족어
5. 결론

1. 서론

국어의 친족어는 쓰임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친척 어른을 만났을 때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할지 난감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친족어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호칭어와 지칭어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호칭어(呼稱語)는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말'로 대화상황에서 일인칭 화자가 이인칭 청자를 부르는 말이다. 지칭어(指稱語)는 대화상황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화제로 등장하는 3인칭을 가리키는 말이

* 이 논문은 영주어문학회의 '2010 상반기 학술대회(2010.6.11)'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강사. sara3228@paran.com

다. 제주도방언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방, 어멍, 하르방, 할망' 등이 호칭어인지 지칭어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다. '아방, 어멍, 하르방, 할망'은 지칭어이다. 그래서 2인칭 칭자를 부를 때는 쓰이지 않는 용어이다. 그러나 제주도방언의 특색이 드러난다고 하여 2인칭으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본고에서는 제주도방언의 친족어를 화자가 여성인 친족어¹⁾에 국한하여 호칭어와 지칭어로 나누어 그 특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 화자이므로 부계친척과 외가친척이 해당되고, 처가친척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시가의 친족어가 들어가게 된다.

세대(Generation)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이 하였으며 조부모와 증조부모(G2,G3), 부모(G1), 형제(G0) 항렬의 친족어를 순서대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은 F(Female)와 M(Male)으로 나타내었다. G-1세대로 표시할 수 있는 자녀대의 친족어는 화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생략했다.

구분	대상	
G3	화자보다 3세대 위	증조할아버지 항렬
G2	화자보다 2세대 위	할아버지 항렬
G1	화자보다 1세대 위	아버지 항렬
G0	화자와 동세대	형제 항렬

또한 몇 개의 의미자질을 선정하였다. 존칭의 여부, 여성성을 갖는 친족어인지, 친근감을 표현하는 용어인지에 따라 [+존칭], [+남성], [+친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의미자질을 통하여 제주도방언에서 여성화자가 사용하는 친족어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본문에 제시되는 친족어 목록은 김혜숙의 논문²⁾과 제주어사전³⁾에서 언

1)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친족어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여성화자가 친족을 호칭·지칭할 때 쓰는 여성 발화 친족어를 대상으로 했다. 남성화자가 여성을 호칭·지칭할 때 쓰는 친족어를 여성 대상 친족어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급된 친족관련 어휘와 아래의 제보자에게 조사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구분	이름	나이	거주지	학력	조사일시
제보자1	강매화	74	제주시 건입동	무학	2010. 6.30.
제보자2	김양녀	85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리	무학	2010. 6.24.
제보자3	김영랑	71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무학	2010. 7. 2.

2. 조부모 향렬(G2)과 증조부모 향렬(G3)의 친족어

2.1. 대상이 남성(F)인 친족어

조부모 향렬(G2)과 증조부모 향렬(G3)의 남성(F)을 대상으로 하는 친족어는 어말에 '할아버지'가 붙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방언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친족어는 [+존칭]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친족어를 사용하나 접두사 '시-'를 사용하는 [-남성]의 형태가 있다.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친근감을 주는 존재라기보다는 위엄과 권위가 느껴져서 그런지 [+친밀]의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종류	호칭어	지칭어
증조부	하르바님, 할아버님, 왕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하르방, 왕하르방
조부	하르바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성할아버지, 성하르방, 할아버지, 당하르바님
종조부	하르바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넋할아버지, 넋하르방, **할아버지
대고모부	하르바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고모할아버지, 고모하르방, **할아버지

- 2) 김혜숙, 『제주도의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사전』, 2009.

종류	호칭어	지칭어
외증조부	하르바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외증조할아버지, 외왕하르방
외조부	하르바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하르방
남편의 증조부	하르바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시증조하르바님, 시증조할아버지, 시증조하르방, 시왕하르방
남편의 조부	하르바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시하르바님, 시할아버지, 시하르방

**: 지명

할아버지와 관련된 호칭어는 그가 증조부이건, 외조부이건 남편의 조부이건 상관없이 “하르바님, 할아버님, 할아버지”로 쓰인다. 할아버지의 변이형인 ‘할아버지’도 볼 수 있다. 할아버지의 [-존칭]의 형태로 ‘하르바님’이나 ‘할아버님’이 쓰인다.

할아버지의 지칭어는 표준어와 같이 ‘증조, 외증조, 시증조’와 같은 용어와 ‘하르바님, 할아버지, 하르방’과 같은 친족어 결합되어 쓰인다. 부계의 조부는 ‘성할아버지’, 모계의 조부는 ‘외할아버지’라고 구분하지만 실제 호칭에서는 동일하게 ‘하르바님, 할아버님, 할아버지’라고 하여 부계나 모계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아버지를 뜻하는 ‘하르방’은 제주에서 호칭어로는 쓰이지 않으며 주로 지칭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존칭]의 친족어로 비슷한 연령이거나 손아래 사람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쓰인다.

할아버지와 관련된 친족어 중 특이한 것은 증조부의 경우에는 ‘왕-’을 증조부의 경우 ‘큰-’이라는 접두사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증조부의 경우 ‘왕-’이라는 접두사를 써서 할아버지보다 더 윗대라는 것을 나타낸다. ‘왕-’은 ‘크다’라는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로 보통 증조부를 말할 때 쓰인다. ‘왕하르방, 외왕하르방, 시왕하르방’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큰-’이라는 접두사는 ‘할아버지의 순위 남자형제와 그의 부인’을 지칭할 때 ‘큰할아버지, 큰할머니’라고 쓴다.

‘넋-’이라는 접두사는 표준어에서 아버지의 외숙이나 외숙모와 자기와

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쓴다. 녃손자(누이의 손자), 녃할아버지(아버지의 외숙), 녃할머니(아버지의 외숙모) 등이 표준국어 대사전⁴⁾에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제주도방언에서 '녓하르방, 녃할망'의 쓰임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제주도에서 '녓하르바님'과 '녓할마님'이란 용어는 종조부와 종조모 즉, 할아버지의 형제에 대해 사용⁴⁾된다고 하기도 하고, 할머니의 남자형제에만 국한된 친족어라고 하기도 한다. 실제 조사 중에도 제보자1은 할머니의 남자형제와 여자형제에게 모두 사용되는 용어라고 했고, 제보자2는 할머니의 남자형제만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으며, 제보자3은 종조부모를 가리킨다고 했다.

또한 황해도 방언에서 '녓할마이'가 '종조모, 할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만 표준어와 다르게 쓰이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중세에 넓은 범위로 사용되던 것이 그 범위가 축소되어 현재에 이른 듯하다. 고어에서의 '녓-'의 쓰임은 번역소학(1518년)⁵⁾과 소학언해 선조판(1586년)⁶⁾에서 찾아볼 수 있다.

2.2. 대상이 여성(F)인 친족어

제주도에서 할머니를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친족어 역시 [+존칭]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 [-남성]형태로 접두사 '시-'를 쓰는 용어가 있고, [+친밀]을 나타내는 친족어는 찾아 볼 수 없다.

종류	호칭어	지칭어
증조모	할마님, 할머니, 왕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망, 왕할망
조모	할마님, 할머니, 할머니	성할머니, 성할망, 할머니, 당할마님
종조모	할마님, 할머니, 할머니	큰할머니, 녃할머니, 녃할망, **할머니

4) 김혜숙, 『제주도의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5) 번역소학(9:80) “아줌이며 녃할미 남편으란 반드시 닐오더 아모 성 아줌의 남편이며(諸姑尊姑之夫必曰某姓姑夫)”

6) 소학언해(6:74) “아즈미여 녃할미 남편으란 반드시 굴오더 아모 姓 아줌의 남편이며 아모 姓 녃할의 남편이라호고(姑尊姑之夫必曰 某姓姑夫某姓尊姑夫)”

종류	호칭어	지칭어
대고모	할마님, 할머니, 고모할머니	고모할머니, 고모할망, **할머니
외증조모	할마님, 할머니, 할머니	외증조할머니, 외왕할망
외조모	할마님, 할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망
남편의 증조모	할마님, 할머니, 할머니	시증조할마님, 시증조할망, 시왕할망
남편의 조모	할마님, 할머니, 할머니	시할마님, 시할망

**: 지명

할머니와 관련된 친족 호칭어는 [+존칭]의 '할마님, 할머니'이 있고 평칭으로 '할머니'를 볼 수 있다. 증조모에게는 '왕할머니' 대고모에게는 '고모할머니'라는 호칭이 특이하다. 증조할머니를 '왕-'이라는 접두사를 써서 사용하고, 아버지의 고모 즉, 할아버지의 여자형제를 G0 세대가 부를 때는 '고모할머니'라고 하는 것이다.

지칭어에서 [-존칭]형이라 할 수 있는 '할망'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할아버지 형제에게 '큰-', '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상이 남성(M)인 지칭어와 같다.

3. 부모 항렬(G1)의 친족어

3.1. 대상이 남성(F)인 친족어

제주도에서 여성화자가 1세대 위인 부모 항렬(G1)의 남성(F) 즉, '아버지, 백부, 숙부'를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친족어는 [+존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결혼한 여성화자의 지칭어에서 [-남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친밀]로 분류할 수 있는 지칭어도 있다.

종류	호칭어	지칭어
친정아버지	아바님, 아버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방, 부친, 친정아방, 친정아버지, @00외하르방

종류	호칭어	지칭어
시아버지	아바님, 아버님, 아버지, 아부지	아버지, 아방, 시아버지, 시아방, 시아바님, @00하르방
백부	큰아버님, 큰아버지	큰아버지, 큰아방
숙부	(셋, 말젯, 죽은)아버지	(셋, 말젯, 죽은)아버지 또는 아방
남편의 백부	큰아버님, 큰아버지	시삼촌, 큰시아버지, 큰시아방
남편의 숙부	(셋, 말젯, 죽은)아버지	(셋, 말젯, 죽은)시아버지 또는 시아방, 시삼촌
고모부	고모부님, 고모부	고모부, 고모부님
종숙	삼촌, 아주바님, 아지바님	**삼촌, 오촌삼촌
종고모부	삼촌, 고모부님, 고모부	**삼촌, 오촌고모부
외숙	(큰, 셋, 말젯, 죽은)삼촌	(큰, 셋, 말젯, 죽은)외삼촌
이모부	(큰, 셋, 말젯, 죽은)이모부, 이모부님	(큰, 셋, 말젯, 죽은)이모부
남편의 고모부	고모부님	시고모부님
남편의 종숙	삼촌, 아주바님, 아지바님	시오촌삼촌, **삼촌
남편의 종고모부	삼촌, 고모부님	시오촌고모부, **고모부

** : 지명 @00 : 자식이름

G1세대의 남성(M)을 나타내는 호칭어는 [+존칭]의 ‘아바님, 아버님’과 ‘아버지, 아부지’를 볼 수 있다.

지칭어의 경우 [-존칭]의 표현으로 한자어인 ‘부친’이 있으며 [-존칭]형인 ‘아방’을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의 표현으로 ‘친정-’과 ‘시-’를 접두사로 갖고 있는 ‘친정아방, 친정아버지, 시아방, 시아버지’와, ‘시삼촌, 큰시아방, 셋시아방, 말젯시아방, 죽은시아방’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는 지칭어로만 사용되며 호칭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자식이름을 앞에 써서 ‘@00하르방 또는 외하르방’의 형태가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객관화하여 타인에게 이야기할 때 자식의 이름을 빌어 ‘@00의 할아버지’라는 [-친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형제에게는 순서 개념인 ‘큰, 셋, 말젯, 죽은’을 붙인다. 다섯

이상일 때는 '말췌, 셋말췌, 죽은말췌' 등으로 표현한다. 아버지의 형제에 해당하는 호칭어나 지칭어에 있어서 혼인 여부가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예로 아버지의 막내 동생이라면 혼인 전이나 후에도 호칭어와 지칭어가 '죽은아버지'로 변함없다. 육지의 경우 '혼인 전'의 용어가 '혼인 후'의 용어에 비해 문법적으로 덜 존칭이거나 또는 의미상으로 덜 존칭인 것으로 인지된다. 그러나 제주에서 혼인 전후의 아버지 형제에 대한 친족어가 동일하다. 이를 격식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평등의식의 실현⁷⁾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아버지'라는 호칭 이외의 G1세대의 M에 대한 호칭 중 [+존칭]형은 '고모부님, 이모부님, 아지바님'이 있다.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의 G0세대의 순위 남자를 이르는 '아주바님, 아지바님'이라는 표현이 G1세대인 종속을 부르는 호칭어로 쓰이는 것이 특이하다 하겠다. '아주바님, 아지바님'이라는 표현은 제주도에서 촌수나 친척관계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순위 남자 친척을 부르는 호칭어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친밀]의 표현으로 지명을 나타내는 '**삼촌'은 친척관계를 무시하고 어디에 사는 친척 정도의 표현으로 두루 쓰인다.

[-남성]의 표현으로 '시고모부님, 시오촌삼촌, 시오촌고모부' 등 '시-'가 붙는 지칭어들이 있다. 형제를 나타내는 서열인 '큰, 셋, 말췌, 죽은'을 고모, 이모 앞에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고모, 이모의 남편인 이모부에도 적용된다. 또한 어머니의 남자형제인 외숙에게도 사용한다.

3.2. 대상이 여성(F)인 친족어

제주도에서 여성화자가 1세대 위인 G1세대의 여성(F)을 대상으로 하는 친족어는 어머니, 백모, 숙모를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것이다. [+존칭]으로 분류되며, 결혼한 여자가 쓰는 지칭어에서 [-남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친밀]로 분류할 수 있는 지칭어를 볼 수 있다.

7)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p. 422.

종류	호칭어	지칭어
친정어머니	어마님, 어머니, 어무니	모친, 어머니, 어명, @00외할망
시아머니	어마님, 어머니, 어무니	어머니, 어명, @00할망, 시어명, 시어마님
백모	큰어머님, 큰어머니	큰어머니, 큰어명
숙모	(셋, 말젓, 죽은)어머니	(셋, 말젓, 죽은)삼촌 또는 어머니
남편의 백모	큰어머님, 큰어머니	큰어머니, 큰시아명
남편의 숙모	(셋, 말젓, 죽은)어머니	(셋, 말젓, 죽은)시아머니 또는 시어명
고모	고모님, 고모	(큰, 셋, 말젓, 죽은)고모, 00고모
종숙모	삼촌, 아주마님, 아지마님	**삼촌, 오촌삼촌각시
종고모	삼촌, 고모님, 고모	**삼촌, 00고모, 오촌고모
외숙모	(큰, 셋, 말젓, 죽은)외숙모	(큰, 셋, 말젓, 죽은)예편외삼촌
이모	(큰, 셋, 말젓, 죽은)이모님 또는 이모	(큰, 셋, 말젓, 죽은)이모, 00이모
남편의 고모	고모님	시고모님
남편의 종숙모	삼촌	시오촌삼촌각시, **삼촌
남편의 종고모	삼촌, 고모님	시오촌고모, **고모

** : 지명, 00 : 이름, @00 : 자식이름

G1의 F를 부르는 호칭어는 [+존칭]형인 ‘어마님, 어머니’가 있고 이는 친정과 시어머니가 동일하다. ‘어머니’는 평칭으로 변이형인 ‘어무니’가 쓰이기도 한다. [-존칭]의 호칭어로 접미사 ‘-님’을 붙인 ‘고모님, 이모님’이 있고, 남성에게 사용되며 촌수를 나타내는 ‘삼촌’이라는 호칭어가 여성 친척들을 부를 때도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칭어로서는 [+존칭]형인 ‘모친’이 친정어머니의 지칭어로 쓰이고 있으며 [-존칭]형으로 ‘어명, 시어명’ 등이 있다. 또한 [-친밀]의 표현으로 지명을 앞에 써서 나타내는 ‘**어머니’가 있고, 자식의 이름을 앞에 두어 ‘@00할머니’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자신보다 손위 사람에게 자신의 부모를 이룰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남성]의 친족어는 ‘시아명, 큰시아명, 시삼촌’ 등으로 지칭어에서만 사용된다. 여성들은 비존칭 용어 즉 몇 가지의 기본

용어를 토대로, 이를 합성하여 친족어를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숙모'라는 표현 대신 '오촌+삼촌+각시'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촌수, 친척, 부인'이라는 뜻을 모두 전달한다. 5촌, 7촌, 9촌 남성을 부를 때는 '아주바님' 또는 '아지바님', 여성은 '아주마님' 또는 '아지마님'이라고 부른다.

[-남성]의 지칭어로 '시고모님, 시오촌삼촌각시, 시오촌고모'가 있으며 여성인 친척을 나타내는 '예편삼촌'이 있다. 지칭어에서는 [-친밀]의 표현으로 지명을 앞에 쓴 '**삼촌'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4. 형제 항렬(G0)의 친족어

4.1. 대상이 남성(M)인 친족어

제주도에서 여성화자가 G0의 남성(M)을 이르는 친족어는 [±존칭], [-남성], [±친밀]로 분류할 수 있다.

친족의 종류	호칭	지칭
오빠	오라바님, 오라바니	오라바님, 오라방
사촌오빠	오라바님, 오라바니	스촌오라바님, OO오라바님
고종사촌오빠	오라바님, 오라바니	고모님큰아덜, OO오라바님
외사촌오빠	오라바님, 오라바니	외스촌오라바님, OO오라바님
이종사촌오빠	오라바님, 오라바니	이모님아덜, OO오라바님
형부	아주바님, 아지바님, 형부	아주바님, 아지바님, 아지방, 형부
사촌형부	아주바님, 아지바님, 형부	스촌아지바님, 스촌형부, **아지바님
고종사촌형부	아주바님, 아지바님, 형부	고모님사위, **아지바님
외사촌형부	아주바님, 아지바님, 형부	외스촌성님서방, **아지바님
이종사촌형부	아주바님, 아지바님, 형부	이모님사위, **아지바님
남편의 형	아주바님, 아지바님	시아주바님, 큰아지바님, 시아지방
남편의 사촌형	아주바님, 아지바님	시스촌아지바님, **아지바님

친족의 종류	호칭	지칭
남편의 매형	아주바님, 아지바님	큰시누이서방, @00아방
남편의 사촌매형	아주바님, 아지바님	시스춘큰시누이서방, **아지바님
남동생	00야	오라방, 남동생, 오래비
사촌남동생	00야, @00아방	스춘오라방, 스춘오래비, 스춘동생, @00아방
고종사촌 남동생	00야, @00아방	고모님죽은아덜, **오라방, @00아방
외사촌남동생	00야, @00아방	외스춘오라방, 외스춘동생, @00아방
이종사촌 남동생	00야, @00아방	이모님아덜, @00아방
제부	아주방, 아지방	아주방, 아지방, 아시서방, @00아방
사촌제부	아주방, 아지방	스춘아지방, **아지방, @00아방
고종사촌제부	아주방, 아지방	고모님사위, **아지방, @00아방
외사촌제부	아주방, 아지방	외스춘아시서방, **아지방, @00아방
이종사촌제부	아주방, 아지방	**아지방, @00아방
남편의 동생	아주방, 아지방	시동생, 시아지방, 죽은아지방
남편의 사촌남동생	아주방, 아지방	시스춘동생, @00아방
남편의 매제	아주방, 아지방	죽은시누이서방, @00아방
남편의 사촌매제	아주방, 아지방	시스춘시누이서방, @00아방

** : 지명, 00 : 이름, @00 : 자식이름

제주도방언에서 G0의 순위 남성(F)을 호칭하는 말로는 '오빠'의 [+존칭], [-남성]형의 '오라바님'과 평칭의 '오라바니'가 있다. 사촌오빠이거나 외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이어도 마찬가지다.

지칭어에서 순위 남성을 지칭할 때 [-존칭], [-남성] 형으로 쓰이는 '오라방'이 손아래 남성에게도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라방'이 손아래와 순위 두루 쓰일 수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모님아덜, 고모님아덜'

과 같은 호칭은 [-친밀]의 표현으로 여성화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지칭어로 촌수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형태이다.

언니의 남편인 형부를 호칭하는 말은 '아주바님, 아지바님'이 [+존칭], [-남성]형으로 나타나고 표준어의 영향으로 '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모님사위, 이모님사위'와 같이 풀어서 지칭하고 있으며 지명을 앞에 쓴 '**아지바님'은 [-친밀], [-남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의 형, 매형을 호칭하는 말도 역시 '아주바님, 아지바님'으로 [+존칭], [-남성] 호칭어이다. 지칭어는 '시-'라는 접두사를 사용하여 [-남성] 형태를 보인다. [-존칭]형으로 '시아지방, 00아방'과 같은 형태도 보인다. 형부나 남편의 형인 시숙에게도 동세대의 순위 이성이므로 '아지바님, 아주바님'으로 호칭한다.

중세국어에 남자형제에 관한 친족어휘에는 '오라비', '오라바님'이 있다. '오라바님'은 존칭으로서 호칭과 지칭 기능을 겸하였다. 19세기에 오면 '오라바'에 외형적인 변모가 나타난다. 곧 '오라바'가 '옹바'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옹바'는 20세기 초에는 '오빠'로 표기된다.⁸⁾ 중세어의 '오라바'의 본래 의미는 남자 형제를 모두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순위 남자형제만 일컫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G0세대의 손아래 M을 가리키는 말로는 '오라방, 오래비', '아주방, 아지방'이 대표적이다. '오라방, 오래비'는 남동생을 이르는 말이고, '아주방, 아지방'은 여동생의 남편이나, 남편의 동생 등 결혼으로 맺어진 친척관계의 손아래 남성에게 쓰이는 표현으로 분류된다. '오래비'는 '오라비'의 제주도 방언이고 '오라버니'의 낮춤말로 과거에는 남자형제를 두루 이룰 때 쓰였으나 현재는 주로 남동생만을 지칭하여 쓰인다. [-존칭], [-남성]의 성격을 갖는 '오라방'은 '오라버니'와 같은 말로 주로 오빠를 지칭할 때 쓰이는 데 위의 표를 보면 남동생을 지칭할 때도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라방'이라는 용어가 순위 남성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손아래 남성에게

8) 정달영, 「한국어의 친족호칭어와 지칭어에 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5, 한민족문화학회, p.206.

도 쓰이는 것은 특이하다 하겠다. 중세국어의 '오라바'가 남자 형제를 모두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순위 남자형제만 일컫는 말로 의미가 축소된 것을 생각해 보면 제주도방언인 '오라방'도 그 범위가 '오라바'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아주방, 아지방'은 친척관계의 손아래 남자를 이르는 말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친밀]의 표현으로 지역명을 붙인 '**아지방'과 관계나열방식의 '고모님사위, 외스촌아시서방'과 같은 표현이 지칭어에서 보인다. 결혼한 여성이 손아래 시동생이나 여동생의 남편에게 '아주방, 아지방'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호칭어 경우 남편의 동생에게 '도련님'이라고 하여 손아래의 경우에도 [+존칭]형을 사용하는 반면 제주에서는 '아주방, 아지방' 혹은 그의 아이 이름을 붙인 '@00아방'으로 부르거나 이름을 직접 부른다. 여성이 손아래 시누이에 대해 '아가씨'라고 경어로 호칭하는 표준어와 달리 제주도에서는 친정동생처럼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 오빠나 언니에게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님'자를 붙인다. 그러나 남동생이나 여동생에게는 '오라방, 아시' 또는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시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형과 누나 및 그 배우자에게는 '님'자가 붙여 [+존칭]의 의미를 나타내나 시동생과 시누이에 대하여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아지방, 아시'를 사용하는데 이는 존칭이 아니다. [-존칭]의 친족어이다. 일반적으로 부계 및 모계의 호칭어들은 평칭의 용어들로 구성되는 반면 시댁의 호칭어들은 존칭의 용어들로 구성된다는 한국의 친족 용어의 특징이 제주에서는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4.2. 대상이 여성(F)인 친족어

제주도방언에서 여성화자가 G0세대의 여성(F)을 부르거나 지칭하는 친족어는 [+존칭], [-남성], [+친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친족의 종류	호칭	지칭
언니	성님, 성, 언니	성님, 성, 언니
사촌언니	성님, 언니	스촌성님, 00언니
고종사촌언니	성님, 언니	고모님똥, 00언니
외사촌언니	성님, 언니	외스촌성님, 00언니
이종사촌언니	성님, 언니	외스촌성님, 00언니
(손위)올케	성님, 언니	성님, 오라방각시, 아지방
(손위)사촌올케	성님	스촌오라바님각시, **성님
(손위)고종사촌올케	성님	고모님큰메누리, **성님
(손위)외사촌올케	성님	외스촌오라바님각시, **성님
(손위)이종사촌올케	성님	이모님메누리, **성님
손위동서	성님	큰동세, 큰성님
남편의 사촌누나	성님	시스촌큰시누이, **성님
남편의 누나	성님	큰시누이
남편의 사촌형수	성님	시스촌동세, **성님
여동생	아시, 00야	아시, 동생
사촌여동생	아시, 00야	스촌아시, @00어멍
고종사촌여동생	아시, 00야, @00어멍	고모님똥, 00아시, @00어멍
외사촌여동생	00야, @00어멍, 아시	외스촌아시, @00어멍
이종사촌여동생	아시, 00야, @00어멍	외스촌아시, @00어멍
(손아래)올케	아주망, 아지방, @00어멍	아지방, 오라방각시, 오레비각시
(손아래)사촌올케	아주망, 아지방, 아시	스촌아지방, **아시, @00어멍
(손아래)외사촌올케	아주망, 아지방, 아시	외스촌아지방, **아시, @00어멍
(손아래)고종사촌올케	아주망, 아지방, 아시	고모님죽은아덜각시, **아시, @00어멍
(손아래)이종사촌올케	아주망, @00어멍, 아시	이모님메누리, **아시, @00어멍
남편의 여동생	@00어멍, 00야	죽은시누이, @00어멍
남편의 사촌여동생	@00어멍, 00야	시스촌시누이, @00어멍
손아래동서	아시	동세, @00어멍
남편의 사촌제수	아시	시스촌동세, **아시, @00어멍

** : 지명, 00 : 이름, @00 : 자식어름

G0의 손위 여성(F)에 대한 호칭어는 ‘형’의 방언형인 ‘성’의 [+존칭] 표현으로 ‘성님’이 호칭어로 쓰이고 있으며 지칭어에서는 ‘성님’ 앞에 수식을 붙인 표현이 보인다. [-남성]의 지칭어로 접두사 ‘시-’가 들어간 ‘시스춘큰시누이, 큰시누이’가 있다. [+친밀]의 표현으로 ‘성, 언니’가 있고 [-친밀]의 표현으로 지명을 나타낸 ‘**성님’, 친족관계 나열형인 ‘고모님 큰메누리, 외스춘오라바님각시, 이모님메누리’ 등이 지칭어로 쓰인다.

중세국어 이래 손위 동성 형제를 일컫는 말로 한자어 ‘형(兄)’이 활발하게 쓰였다. 그리고 ‘언니’는 근대후반에 나타나 ‘형’과 함께 쓰였다. ‘형’은 남성 사이뿐만 아니라 여성 사이에도 사용된다. ‘언니’는 형을 뜻하는 친족어로서 ‘어니>언니’로의 변화는 동음 첨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마>엄마’, ‘아바>압바’에 보이는 변화양상⁹⁾과 같다. ‘언니’는 동성의 친족 사이에서만 쓰이다가 최근에 와서는 주로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 쓰이는 친족어로 변화하였다. 곧 여성 사이에서는 ‘언니’를 남성 사이에서는 ‘형’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여성 사이에서도 ‘언니’보다는 ‘형’을 뜻하는 ‘성, 성님’의 표현이 많이 쓰인다.

G0의 손아래 여성(F)에 대한 호칭은 주로 ‘아시’이며 올케나 동서지간에도 ‘아시’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아시’는 제주에서 여성화자가 손아래 동성을 부르는 호칭이다. 이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친구처럼 같이 자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름을 부르거나 친동생이 아니어도 ‘아시’라고 부르는 것은 [+친밀]의 표현이다.

손아래 여동생이므로 거의 모든 호칭이 [-존칭]형이라 할 수 있겠지만 특히 ‘00야, 00어멍’과 같은 호칭은 특히 [-존칭]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남성]형의 지칭어로 ‘죽은시누이, 시스춘시누이, 시스춘동세’처럼 접두사 ‘시-’가 붙는 형태가 있다. ‘동서’의 방언형인 ‘동세’는 형제의 아내사이에서나 여자형제들의 남편사이에서 서로를 부르거나 지칭하는 말이므로 [-남성]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지명을 앞에 두고 지칭하는 ‘**아

9) 정달영, 「한국어의 친족호칭어와 지칭어에 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5, 한민족문화학회, p.202.

시'나 호칭을 여러 개 이어 만든 '고모님똥, 이모님메누리' 등은 [-친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는 '弟'와 관련 친족어로 '아스'와 '동성'이 있었다. 그러나 '동성'은 16세기 이후에나 친족어휘 범주로 들어왔으며, '弟'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아스'는 남성 대 남성, 여성 대 여성 즉, 동성 간에 자유롭게 쓰였다. 근대국어로 넘어오면 '아스'는 '아으'로 변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아으'는 19세기 이후에는 '아오', '아우' 등으로 변하게 된다.¹⁰⁾ '아우'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쓰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쓰이지 않는다. 친족어휘로 쓰이는 경우는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 한정되어 예스러운 표현으로 사용되며 '동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 친족어에서는 '동생'보다는 '아우'의 고어형인 '아시'를 더 많이 쓰고 있다.

5. 결론

한국의 가족은 시대의 경과와 더불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신라시대에는 부계적 요소와 비부계적 요소가 공존하였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점진적으로 부계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15세기 이후 서류부가의 기간이 단축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비부계적 요소가 거의 없어지고 부계적 색채만을 띠게 되었다.¹¹⁾ 표준어에서 친족어가 상당히 부계 중심적, 남성 중심적인데 비해 제주도의 친족어는 부계친척에 사용되는 용어가 그대로 외가, 처가, 시가에도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 여성들이 유교적 영향을 덜 받고 교육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것도 있지만 유교적 친족체계가

10) 위의 책, p.203.

11) 가족·환경연구회, 『가족과 환경』, 교문사, 1990, pp.143-144.

정착되기 이전의 친족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화자들이 사용하는 제주지역의 친족어는 지역과 보조호칭의 사용으로 개인을 구분하려는 사고가 드러난다.

제주도방언의 친족어에서 남녀의 차이나 특징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국어가 문법범주로 '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족어에서 화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른 호칭·지칭어의 특징은 확연히 드러난다. 위에서 논의한 제주도방언에서 여성화자가 쓰는 친족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주도방언에서 여성화자의 친족 호칭어는 [-존칭] 용어가 발달되어 있고 [+친밀]의 용어가 많다. 제주지역의 결혼생활은 직계가족을 형성하여 시집식구들을 모셔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누이나 시동생에 대한 용어도 경칭을 사용하지 않고 친정동생처럼 평칭을 사용했다. '아시'가 대표적인데 손아래 동성에게 쓰는 이 표현은 남편의 동생들에게도 편하게 사용했다. 또한 동서지간이나 올케에게도 손아래인 경우 '아시'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둘째, 남성들은 한자어로 된 용어 사용을 선호하지만, 여성들은 기본용어와 몇 가지의 보조용어를 이용한 한글 친족어휘를 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친족어는 한자친족어휘, 한글친족어휘, 한글·한자 혼합 어휘가 존재한다. 친족어 사용에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보다 유교적 성향을 보인다.¹²⁾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지칭어 사용이 발달되어 있는데 한자어로 구성된 친족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비존칭 용어 즉 몇 가지의 기본용어를 토대로, 복합어를 구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친족어를 완성한다.

여성화자들은 복잡한 관계의 친족어를 '시오춘삼춘각시, 시오춘고모부, 고모님사위, 이모님딸, 외스춘아시서방' 등 친족관계의 명칭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친족어는 지칭어로만 쓰인다.

셋째, [-남성]의 호칭어는 주로 접두사 '시-'를 사용하거나 여성 고유의

12) 김혜숙, 『제주도의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p.446.

호칭인 경우이다.

'시아방, 시아버지, 큰시아방, 셋시아방, 말쑤시아방, 작은 시아방', '시아명, 큰시아명', '시고모부님, 시오촌삼촌, 시오촌고모부', '시고모님, 시오촌삼촌각시, 시오촌고모'와 같은 친족어가 있는데 이는 지칭어로만 사용되며 호칭어로는 쓰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친정아방, 친정어명' 등도 역시 지칭어에서만 사용된다. '시아지방, 시스촌큰시누이, 큰시누이, 작은시누이, 시스촌시누이, 시스촌동세'도 접두사 '시-'가 붙는 [-남성]의 성격을 보이는 지칭어들이다.

손위 남성에게 사용하는 '오라바님, 아지바님', 손아래 남성에게 사용하는 '오래비, 아주방' 등도 [-남성]의 친족어이다.

넷째, 제주도방언에서 여성화자가 쓰는 친족 지칭어에는 [-친밀]표현이 많다. '**삼촌'이나 '**오라버님', '**아지바님', '**성님', '**오라방' 등 지역명을 친족어에 결합하여 지칭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표준어에서 '**댁'처럼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이 제주도에서 더 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복잡한 친족관계를 간단하게 기억하고 말하려는 화자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주도 여성들의 실용주의적 정신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다섯째, 중세에서 현대로 오면서 의미축소를 이루는 친족어가 있는데 제주도방언에서는 아직 그 의미축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넋-'이라는 접두사의 사용과, '오라방'의 범위가 그렇다.

'넋-'은 표준어에서 할머니의 남자형제에 국한된 용어로 남아있으나 제주도방언에서는 할머니의 남자형제뿐만 아니라 여자형제에서도 쓰이고, 할아버지의 형제 즉 종조부와 종조모에게도 쓰여 그 쓰임의 범위가 표준어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성]형으로 손아래 남동생을 부르는 호칭어는 '오라방, 오래비'가 있다. 제주도방언의 '오라방'의 경우 오빠뿐만 아니라 남동생을 지칭할 때도 쓰이는 것은 아직 의미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핵심어: 제주도방언, 여성어, 여성화자, 친족어, 호칭어, 지칭어

<참고 문헌>

- 가족·환경연구회, 『가족과 환경』, 교문사, 1990.
- 김미정,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고찰』, 충북대 석사논문, 2010.
- 김정대, 「경남 방언 친족어 연구」, 『배달말』 42, 배달말학회, 2008, pp.1~34.
-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 서민정, 「한국 여성 지칭·호칭어의 변화양상」, 『우리어문연구』30집, 우리어문학회, 2008, pp.327~349.
- 서보월, 「안동지역 친족어연구」, 『안동학 연구』 제2집, 한국국학진흥원, 2003.
-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연구』, 일지사, 1981.
- 이종서, 「14세기 이후 친족용어의 변천과 친족관계」, 『역사비평』 통권63호, 2003, pp.220~248.
- 정달영, 「한국어의 친족 호칭어와 지칭어에 관한 연구」, 『한민족 문화 연구』5, 한민족문화학회, 1999, pp.197~21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사전』, 2009.
- 조지연, 「친족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 『문법교육』 제10집, 한국문법교육학회, 2009, pp.313~346.
- 최규일, 「한국어의 친족호칭어휘 연구」, 『국어교육』55·56, 한국어교육학회, 1986, pp.51~85.
-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 최재석, 『한국의 친족용어』, 민음사, 1988.

<Abstract>

Study on the Kinship terms of JeJu dialect
— Focused on female speakers

Kim Mi-jin

There are many paternal side-oriented, male-oriented kinship terms in Korea compared to Jeju where the kinship terms used to paternal kins are also literally used to the distaff side, wife's old home, and husband's old home. It may result from that women are undereducated and are less influenced from Confucianism, but it could be a former relative system before the settlement of Confucian relative system. Among those kinship terms of Jeju dialect, the kinship terms for female speakers are classified into the terms of address and the terms of reference, and the semantic features called [=honorific],[±male] and[±familiarity] are selec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inship terms used by female speakers in Jeju.

In case of the terms of address of Jeju dialect used by female speaker, [honorific] terms are developed and there are many [+familiarity] terms. In the married life in Jeju area, people need not to form the immediate family and take care of in-laws, but they support themselves. Therefore the terms about sister-in-law or a brother-in-law also don't use terms of respect but ordinary terms as for younger brother and sister.

In the aspect of the use of kinship terms, men prefer the terms of Sino-Korean words while women mainly use Hangul kinship words using basic terms several secondary terms. Women construct and use

compound words based on plain terms, that is, several basic terms to complete the kinship terms. Female speakers use the kinship terms of complicated relationship with the form arranging names of kinship, and those made kinship terms are only used as the terms of reference.

The terms of address for [-male] mainly use the prefix 'Si-' or are the titles native to female. These are only used as the terms of reference except the terms of address. And 'Chinjeong-' meaning the maiden home of married women is also used only in the terms of reference.

Regarding the terms of reference, there are many [-familiarity] expressions combining local name. Combination of a local name and a kinship term is used as terms of reference. It is originated from the mind of speakers who intend to simply memorize and speak the complex kinship and pragmatic spirit of Jeju women could be seen.

In Middle Korean, in case of the kinship terms making reduction of meaning JeJu dialect has not been accomplish reduction of meaning yet. 'neot-' means brothers of grandmother in a standard language while is used as the term of reference for bothers of grandfather in JeJu dialect. Also 'orabang' in JeJu dialect is used to designate not only younger brother but elder brother, and it could be considered that reduction of meaning is not yet accomplished.

- Key words: JeJu dialect, feminine words, female speaker, kinship term, terms of address, terms of reference

* 이 논문은 2010년 7월 15일 투고되었고, 8월 1일 심사 완료되어 8월 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